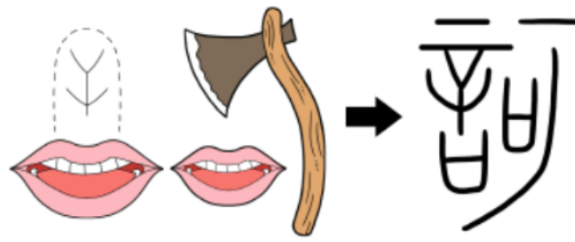


회의문자 ⓘ

7
-
1



歌

노래 가

歌자는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歌자는 哥(노래 가)자와 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言(말씀 언)자와 可(옳을 가)자가 결합한 訶(꾸짖을 가)자가 '노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소전에서 訶자가 '꾸짖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哥(노래 가)자에 欠(하품 흠)자가 결합한 歌자가 따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哥자에 이미 '노래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의 欠자를 응용해 본래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訶

금문

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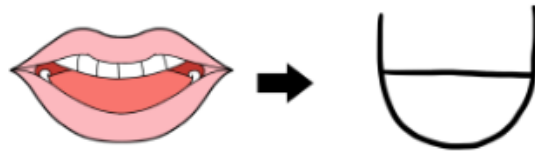
소전

歌

해서

상형문자 ⓘ

7
-
2



口

입 구

口자는 '입'이나 '입구', '구멍'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口자는 사람의 입 모양을 본떠 그린 것이기 때문에 '입'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에 나온 口자를 보면 凵자 모양을 하고 있어 위아래의 구분이 있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네모난 모습으로 바뀌면서 더는 상하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口자는 입을 그린 것이니만큼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대부분이 '입'이나 '소리'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하지만 때로는 '출입구'나 '구멍'과 같이 단순히 모양자로 응용되기도 한다.

凵

갑골문

口

금문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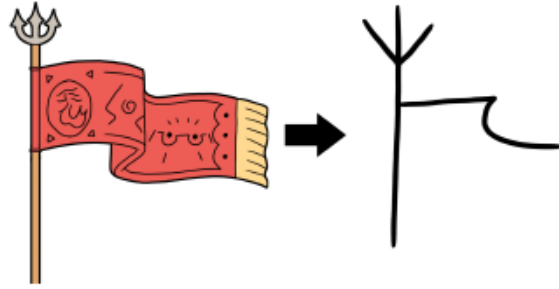
소전

口

해서

7
-
3

상형문자①



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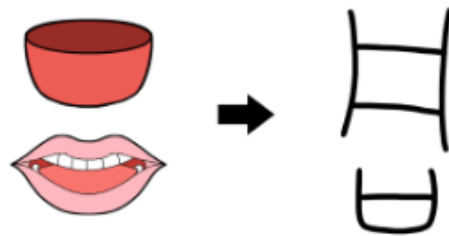
기 기

旗자는 '깃발'이나 '표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旗자는 𠂔(나부길 언)자와 其(그 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旗자를 보면 단순히 깃발만이 𠂔 그려져 있었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斤(도끼 근)자가 더해진 𠂔 글자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소전에서는 斤자 대신 其자가 쓰이면서 발음역할을 하게 되었다. 군대에서 깃발은 소속된 단위를 상징했다. 그래서 旗자는 단순히 '깃발'이라는 뜻 외에도 다른 사물과 분간 할 수 있는 두드러진 '표시'라는 뜻도 함께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
-
4

회의문자①



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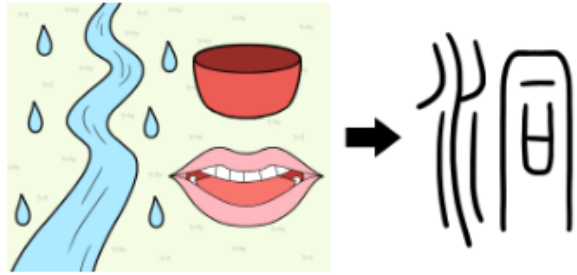
한가지
동

同자는 '한 가지'나 '같다', '함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同자는 凡(무릇 범)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凡자는 큰 그릇을 그린 것으로 '무릇'이나 '모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모두'라는 뜻을 가진 凡자에 口자를 더한 同자는 '모두가 말을 하다' 즉,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모임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원하는 발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同자는 '함께'나 '같다', '우리'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
-
5

회의문자①



洞

굴(마을)
동/
밝을 통

洞자는 '마을'이나 '동굴'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洞자는 水(물 수)자와 同(같을 동)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同자는 여럿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함께'나 '같다'라는 뜻이 있다. 고대에는 강이나 하천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었다. 그러니 洞자는 사람들이 하천을 중심으로 한데 모여 산다는 의미에서 水자와 '함께'라는 뜻을 가진 同자가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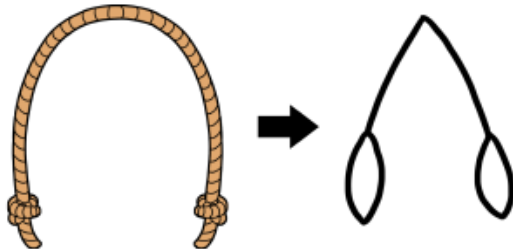
소전

洞

해서

7
-
6

회의문자①



冬

겨울 동

冬자는 '겨울'이나 '동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冬자는 冫(얼음 빙)자와 夂(뒤져 올 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冬자를 보면 긴 끈의 양쪽 끝을 묶어놓은 冫모습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줄이 풀리지 않게 일을 마무리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冬자는 본래 '끝나다'나 '마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冫자가 더해진 冬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糸(실 사)자를 더한 終(끝날 종)자가 '마치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冬

갑골문

冬

금문

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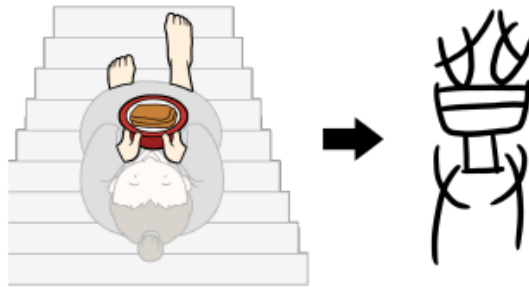
소전

冬

해서

7
-
7

회의문자①



登

오를 동

登자는 '오르다'나 '나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登자는 𡵓(등질 발)자와 豆(콩 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豆자는 제기 그릇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登자의 갑골문을 보면 제기 그릇 위로는 𡵓자가, 아래로는 그릇을 받들고 있는 양손이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신에게 바칠 음식을 들고 제단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소전에서는 제기 그릇을 들었던 양손이 생략되면서 지금의 登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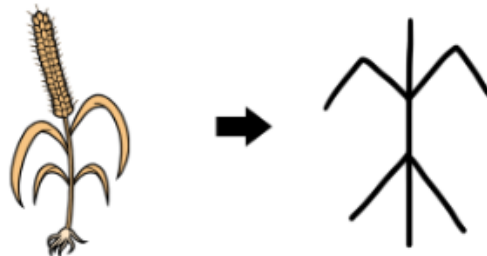
소전



해서

7
-
8

상형문자①



來

올 래

來자는 '오다'나 '돌아오다', '앞으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來자는 人(사람 인)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來자의 갑골문을 보면 보리의 뿌리와 줄기가 함께 來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來자는 본래 '보리'를 뜻하던 글자였다. 옛사람들은 곡식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來자는 점차 '오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來자가 이렇게 '오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夊(뒤져서 올 치)자가 더해진 麥(보리 맥)자가 '보리'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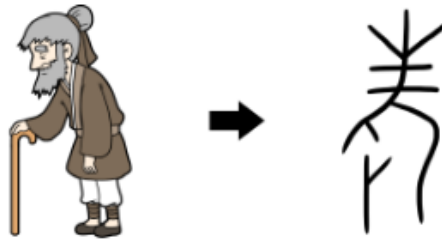
소전



해서

7
-
9

상형문자①



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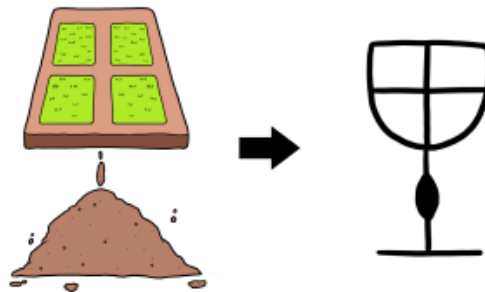
늙을/
노인
로

老자는 '늙다'나 '익숙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예로부터 오랜 경험을 가진 노인은 공경과 배움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노인을 그린 老자는 '늙다'나 '쇠약하다'라는 뜻 외에도 '공경하다'나 '노련하다'와 같은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老자의 갑골문을 보면 머리가 형클어진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耂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금문에서부터는 匕(비수 비)자가 지팡이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老자에 쓰인 匕자는 의미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
-
10

회의문자①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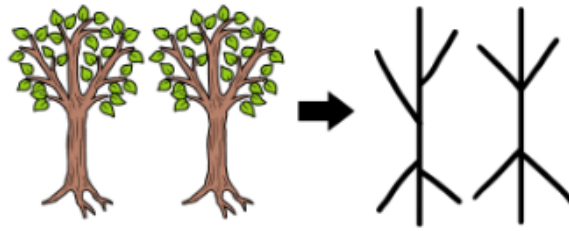
마을 리

里자는 '마을'이나 '인근', '거리를 재는 단위'로 쓰이는 글자이다. 里자는 田(밭 전)자와 土(흙 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밭과 흙이 있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란 뜻이고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니 里자는 '마을'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고대 중국에서는 里자가 마을 단위의 소규모의 행정구역을 뜻했기 때문에 1리(里)는 25가구가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을 의미했다. 또 里자는 거리를 재는 단위로 사용되기도 하여 1리는 약 400m의 거리를 말했다. 그래서 里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마을'이나 '거리'라는 의미를 함께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용한자에서는 주로 발음이나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다.

금문	소전	해서

7
-
11

회의문자①



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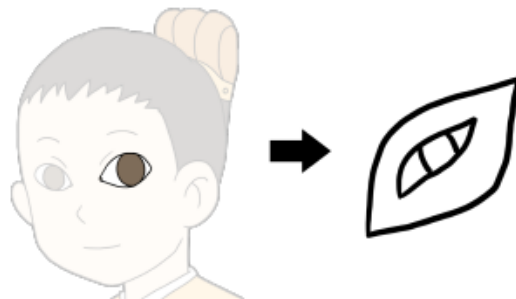
수풀 림

사물을 본떠 만든 상형문자는 글자를 빨리 만들 수 있었지만 다양한 뜻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고안된 방법이 기존에 만들어진 상형문자를 서로 결합해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회의문자(會意文字)이다. 그중에서도 서로 같은 상형문자를 결합하는 것을 동체회의(同體會意)라고 한다. 같은 글자끼리 결합했기 때문에 기존의 의미가 더해지는 효과를 주게 된다. '수풀'을 뜻하는 林자가 그러하다. 林자는 木(나무 목)자를 겹쳐 그린 것으로 '나무가 많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林자보다 나무가 더 많은 것은 '빽빽하다'라는 뜻의 森(빽빽할 삼)자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
-
12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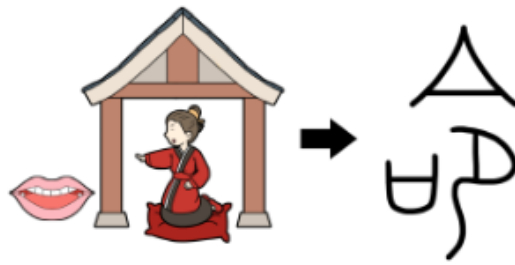
面

낯 면

面자는 사람의 '얼굴'이나 '평면'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面자는 사람의 머리둘레와 눈을 특징지어서 그린 것이다. 面자의 갑골문을 보면 길쭉한 타원형 안에 하나의 눈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面자가 단순히 '얼굴'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얼굴에서 비롯되는 '표정'이나 '겉모습'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기 때문이다.

갑골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命

목숨 명

命자는 '목숨'이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命자는 宀(삼합 집)자와 口(입 구)자, 卩(병부 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宀자는 지붕을 그린 것으로 여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을 그린 卩자가 더해진 命자는 대궐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상관이 내리는 명령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한다. 그래서 命자는 '명령'이라는 뜻 외에도 '목숨'이나 '생명'이라는 뜻이 파생되어 있다.

命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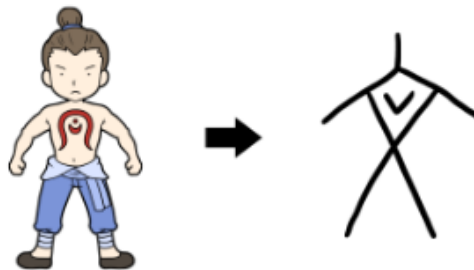
命

소전

命

해서

상형문자①



文

글월 문

文자는 '글'이나 '문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文자는 양팔을 크게 벌린 사람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文자의 갑골문을 보면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의 가슴에 어떠한 문양이 文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몸에 새긴 '문신'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文자의 본래 의미는 '몸에 새기다'였다. 그러나 文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서'나 '서적'과 같이 글을 새겨 넣은 것과 관련된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文자가 이렇게 글자나 서적과 관계된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糸(실 사)자를 더한 紋(무늬 문)자가 '무늬'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文자는 부수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용한자에서는 관련된 글자가 없다.

文

갑골문

文

금문

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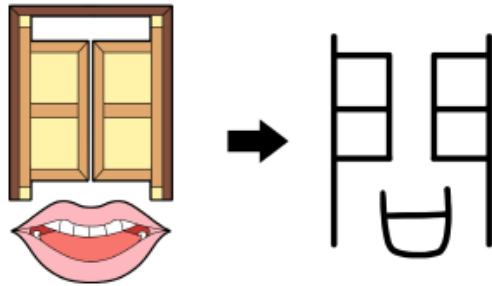
소전

文

해서

7
-
15

회의문자①



問

물을 문

問자는 '묻다'나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問자는 門(문 문)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門자는 양쪽으로 여닫는 문을 그린 것으로 '문'이나 '출입구'라는 뜻이 있다. 問자는 이렇게 문을 그린 門자에 口자를 더한 것으로 남의 집을 방문해 질문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외에도 외부소식은 문을 통해 들어온다 하여 '알리다', '소식'과 같은 뜻도 파생되어 있다.

問

갑골문

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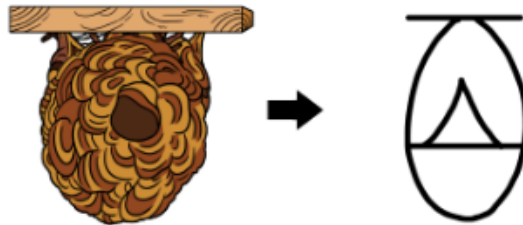
소전

問

해서

7
-
16

상형문자①



百

일백 백

百자는 '일백'이나 '백 번', '온갖'과 같은 수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百자는 白(흰 백)자와 一(한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百자는 白자가 부수로 지정되어는 있기는 하지만 글자의 유래가 명확히 풀이된 것은 아니다. 百자의 갑골문을 보면 타원형 위로 획이 하나 그어져 있고 百 가운데로는 구멍이 있었다. 이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아직은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百자가 아주 오래전부터 '일백'이라는 수로 쓰인 것을 보면 이것은 지붕에 매달린 말벌집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말벌집 하나당 약 100여 마리의 말벌이 있으니 그럴듯한 가설이다.

百

갑골문

百

금문

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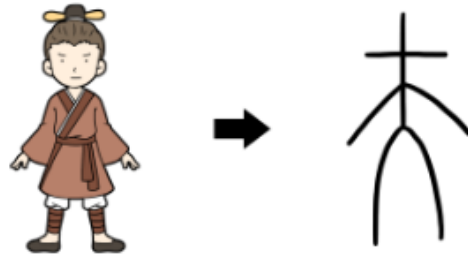
소전

百

해서

7
-
17

상형문자 ㉠



夫

지아비/
사내
부

夫자는 '지아비'나 '남편', '사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夫자는 大(큰 대)자와 一(한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夫자를 보면 사람의 머리 부분에 획이 하나 亠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남자들이 머리를 고정할 때 사용하던 비녀를 그린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남자들이 머리에 비녀를 꽂아 성인이 됐음을 알렸다. 그래서 夫자는 이미 성인식을 치른 남자라는 의미에서 '남편'이나 '사내', '군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夫

갑골문

夫

금문

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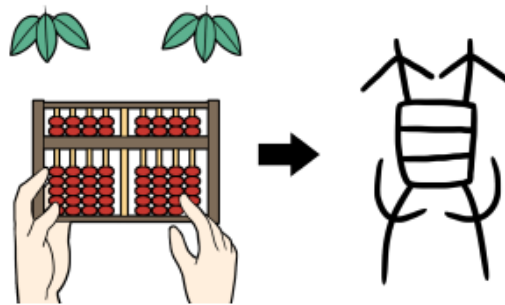
소전

夫

해서

7
-
18

회의문자 ㉠



算

셈(할)
산

算자는 '계산'이나 '셈', '수호'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算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目(눈 목)자, 升(받들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目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산가지(算木)와 같은 계산 도구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 算자는 대나무를 일정한 방법으로 늘어놓아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산가지로 계산하는 방식은 고대로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주판이 보급되면서 사라졌으나,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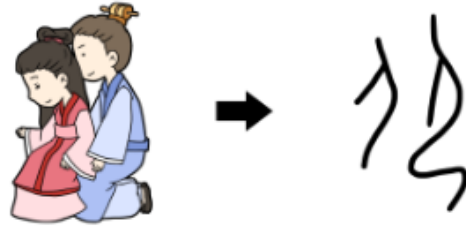
소전

算

해서

7
-
19

회의문자①



色

빛 색

色자는 '색채'나 '얼굴빛', '정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色자는 허리를 굽히고 있는 사람
그린 ㄱ 것과 바(꼬리 파)자가 결합한 것이다. 바자는 '꼬리'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본래
는 손을 내뻗고 있는 사람을 ㄹ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色자를 보면 두 사람이 나란히
붙어있는 ㄱ ㄹ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이성간에 성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다. 그러니 色자에 있는 '얼굴빛'이나 '정욕', '색채'라는 뜻도 사실은 성관계를 맺으며 붉게 달
아오른 얼굴빛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갑골문	소전	해서

7
-
20

상형문자①



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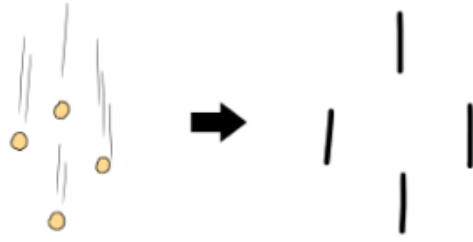
저녁 석

夕자는 '저녁'이나 '밤'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夕자는 달을 본떠 그린 것으로 갑골문에 나
온 夕자를 보면 초승달이 丩 그려져 있다. 그러다보니 '달'을 뜻하는 月(달 월)자와는 丩 매
우 비슷하지만 夕자는 가운데 점이 없는 모습으로 구별되었다. 夕자는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모습이라 하여 '저녁'을 뜻하게 된 것이라 풀이하기도 한다. 그래서 夕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이 '저녁'이나 '밤'과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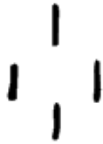
상형문자①



少

少자는 '적다'나 '많지 않다', '적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少자는 작은 파편이 튀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小(적을 소)자와 기원이 같다. 다만 小자가 3개의 파편을 그린 것이었다면 少자는 4개의 파편이 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고대에는 파편의 수와는 관계없이 小자와 少자 모두 '작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러나 지금의 小자는 '작다'로 少자는 '적다'라는 뜻으로 분리되었다.

적을 소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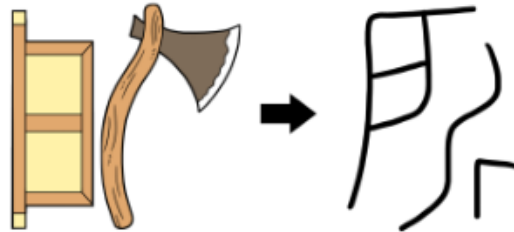
소전



해서

7
-
22

형성문자①



所

所자는 '곳'이나 '지역', '지위', '위치', '얼마'와 같이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所자는 戶(지게 호)자와 斤(도끼 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所자는 본래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를 뜻했던 글자였다. B.C 470년경의 시가집인 시경(詩經)에는 '벌목소소(伐木所所)'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여기서 所所란 '나무를 찍는 소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所자는 본래 나무를 찍는 소리를 뜻하기 위해 戶자는 발음요소로 斤자는 의미요소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후에 '장소'나 '자리'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었다.

바 소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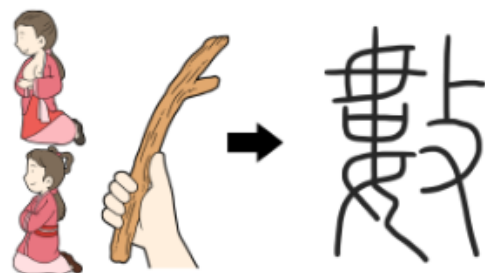
소전



해서

7
-
23

회의문자①



數자는 '세다'나 '계산하다', '헤아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數자는 叒(곧 누)자와 攴(칠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叒자는 두 여인이 위아래로 포개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한자에서 叒자가 들어간 글자들은 대부분이 樓(다락 루)자처럼 '겹치다'라는 뜻을 전달한다. 이렇게 겹침을 뜻하는 叒자에 攴자가 결합한 것은 숫자 一, 二, 三과 같이 막대기로 셈을 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고대에는 막대기를 겹쳐 셈을 했다. 이를 산가지라 한다. 그러니 數자에 쓰인 攴자는 몽둥이가 아닌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數자를 막대기를 겹쳐 셈을 한다는 의미에서 '세다'라는 뜻을 갖게 된 글자이다.

數

셈 수

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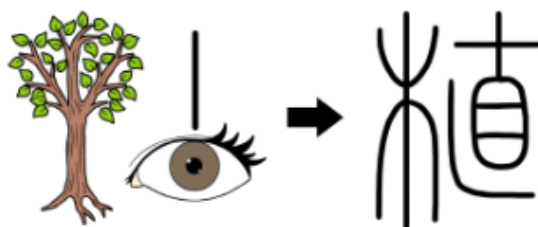
소전

數

해서

7
-
24

회의문자①



植자는 '심다'나 '세우다', '수립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植자는 木(나무 목)자와 直(곧을 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直자는 눈동자에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그려져 '곧다'라는 뜻을 갖게된 글자이다. 이렇게 '곧다'라는 뜻을 가진 直자에 木자를 결합한 植자는 '나무를 곧게 심다'라는 뜻이다.

植

심을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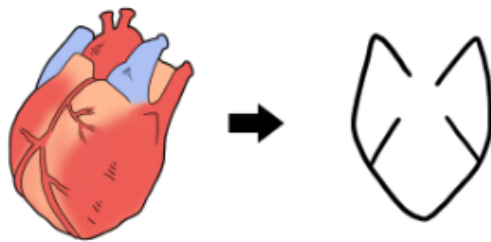
植

소전

植

해서

상형문자①



心

마음 심

心자는 '마음'이나 '생각', '심장', '중앙'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心자는 사람이나 동물의 심장을 그린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心자를 보면 심장이 ㄱ 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심장은 신체의 중앙에 있으므로 心자는 '중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옛사람들은 감정과 관련된 기능은 머리가 아닌 심장이 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心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마음이나 감정과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참고로 心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위치에 따라 忄이나 㝱자로 바뀌게 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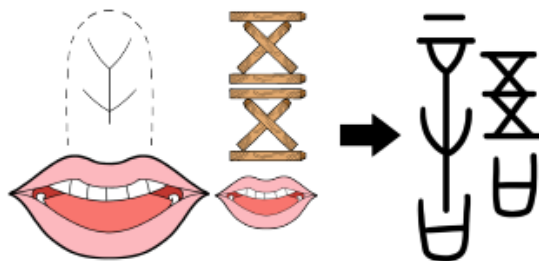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語

말씀 어

語자는 '말씀'이나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語자는 言(말씀 언)자와 訃(나 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訃자는 '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지금은 잘 쓰이지 않지만, 고대 중국에서는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다. 이렇게 '나'를 뜻하는 訃자에 言자가 결합한 語자는 '나의 말'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본래의 의도를 명확히 알기 어렵지만, 자신이 하는 말을 뜻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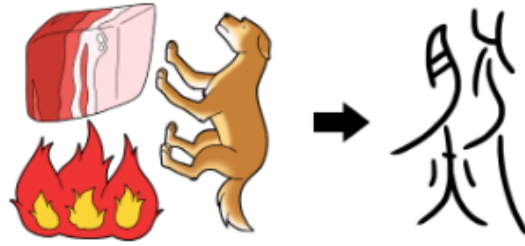
소전



해서

7
-
27

회의문자①



然

그럴 연

然자는 '그러하다'나 '틀림이 없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然자는 犬(개 견)자와 肉(고기 육)자, 火(불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글자의 조합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개고기를 불에 굽고 있는 모습이다. 然자의 본래 의미는 '까맣게 타다'였다. 개는 가족을 벗기지 않고 껍질째 불에 그슬려 익혀 먹는다. 그러면 껍질이 새까맣게 타게 되기 때문에 然자는 '까맣게 타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그러하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火자를 더한 燃(그을릴 연)자가 '그을리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然

금문

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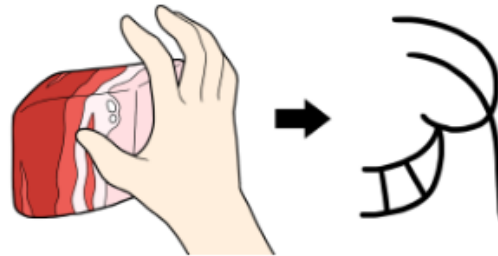
소전

然

해서

7
-
28

회의문자①



有

있을 유

有자는 '있다', '존재하다',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有자는 又(또 우)자와 月(육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여기에 쓰인 月자는 肉(고기 육)자가 변형된 것이다. 有자의 금문을 보면 마치 손으로 고기를 쥐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내가 고기(肉)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有자는 값비싼 고기를 손에 쥐는 모습으로 그려져 '소유하다', '존재하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有

금문

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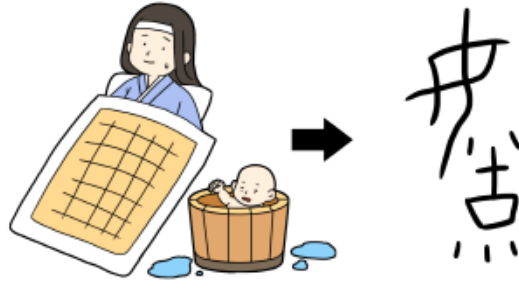
소전

有

해서

7
-
29

회의문자 ①



育

기를 육

育자는 '기르다'나 '낳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育자는 子(아들 자)자와 月(육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育자의 갑골문을 보면 女(여자 여)자와 子(아들 자)가 함께 𠂔 그려져 있었다. 여기서 子자는 거꾸로 그려진 채 주변은 물이 튀어있는 모습이었다. 이것은 막 출산을 끝낸 어미와 아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育자는 이렇게 아이를 막 낳은 모습으로 그려졌었지만 소전으로 넘어오면서 어미는 사라지고 子자를 거꾸로 뒤집은 𠂔 것과 肉(月)자가 결합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𠂔

갑골문

𠂔

금문

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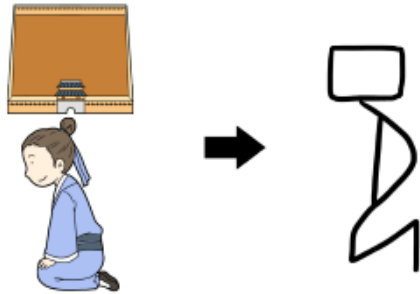
소전

育

해서

7
-
30

회의문자 ①



邑

고을 읍

邑자는 '고을'이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邑자는 口(에워쌀 위)자와 邑(꼬리 파)자가 결합한 것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邑자를 보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그린 𠂔(병부절)자 위로 口자가 그려져 있었다. 여기서 口자는 '성(城)'이나 '지역'을 표현한 것으로 邑자는 성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邑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성'이나 '도읍'이라는 뜻을 전달하게 된다. 邑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阝자로 바뀌게 되는데, 글자의 우측에 위치할 때만 邑자가 바뀐 것이고 좌측에 있다면 阜(언덕 부)자의 부수이다.

𠂔

갑골문

邑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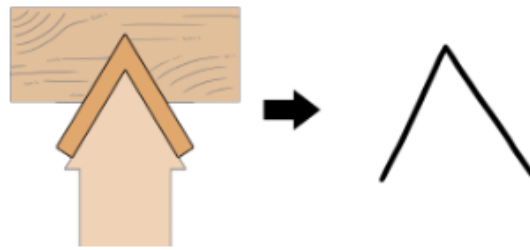
邑

소전

邑

해서

지사문자①



入

들 입

入자는 '들다'나 '빠지다', '간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그동안은 入자를 사람이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해석했었다. 사람을 뜻하는 人(사람 인)자를 반대로 그린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入자의 갑골문을 보면 본래는 뾰족한 삼각형을 入 그렸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무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入자가 '들어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을 보면 나무를 끼워 맞추기 위해 끝을 뾰족하게 다듬은 형태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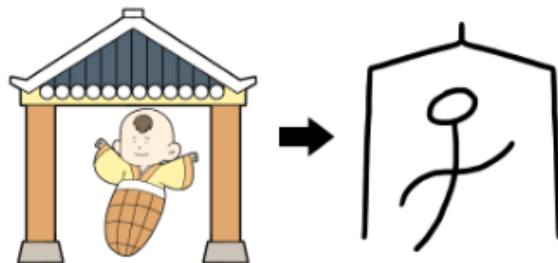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字

글자 자

字자는 '글자'나 '문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字자는 宀(집 면)자와 子(아들 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宀자는 지붕을 그린 것이기에 집과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이렇게 집을 뜻하는 宀자에 子자가 결합한 字자는 '집에서 아이를 기른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었다. 字자에 아직도 '기르다'나 '양육하다'라는 뜻이 남아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진시황 때부터 字자를 '글자'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문자(文字)'와 관련된 뜻으로 쓰이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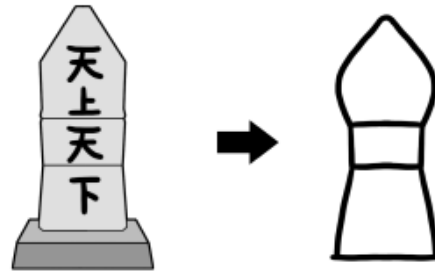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祖

할아버지
/조상
조

祖자는 '조상'이나 '할아버지', '시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祖자는 示(보일 시)자와 且(또 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且자는 비석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갑골문까지만 하더라도 且자가 '조상'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且자가 다른 여러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여기에 示자를 더한 祖자가 '조상'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祖자는 선대를 뜻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조상'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근본'이나 '시조'와 같이 한 집안의 근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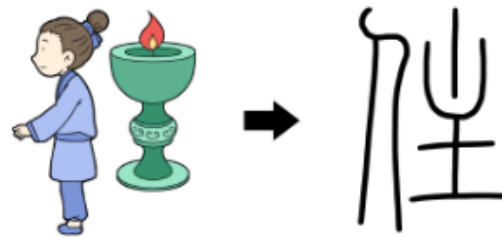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住

살 주

住자는 '살다'나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住자는 人(사람 인)자와 主(주인 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主자는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는 있지만, 방안을 밝히던 촛대를 그린 것이다. 빈집에는 방안을 밝힐 불이 켜지지 않는다. 그러니 住자는 집에 사람이 살고 있기에 불이 켜져 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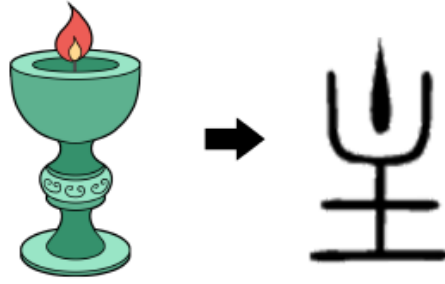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主

임금/
주인
주

主자는 '주인'이나 '주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主자는 王(임금 왕)자에 丶(점 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主자는 본래 촛대를 그린 것이었다. 소전에 나온 主자를 보면 긴 촛대 위에 심지가 主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主자의 본래 의미는 '심지'였다. 그러나 후에 主자가 '주인'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火(불 화)자를 더한 炷(심지 주)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한 집안을 밝혀야 할 사람은 가장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主자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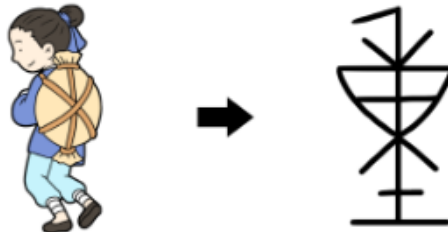
主

소전

主

해서

회의문자①



重

무거울
중

重자는 '무겁다'나 '소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重자는 里(마을 리)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마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重자는 東(동녘 동)자와 人(사람 인)자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이다. 東자는 본래 끈으로 사방을 동여맨 보따리를 그린 것이다. 금문에 나온 重자를 보면 人자 아래로 東자가 重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등에 짐을 지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重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무겁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보따리에는 곡식의 씨앗과 같은 매우 중요한 것이 담겨있다. 왜냐하면, 重자에는 '소중하다'나 '귀중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이다.

重

금문

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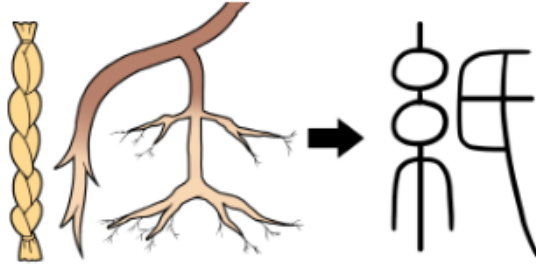
소전

重

해서

7
-
37

형성문자①



紙

종이 지

紙자는 '종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紙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氏(성씨 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氏자는 나무뿌리가 땅속으로 뻗어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씨→지'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대나무를 갈라 글을 썼다. 이것을 죽간(竹簡)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좀 더 부드러운 재질인 천이나 비단에 글이나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이것을 紙라고 했다. 종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천 조각이 '종이'라는 개념으로 쓰였으니 糸자가 의미요소로 쓰인 것이다.

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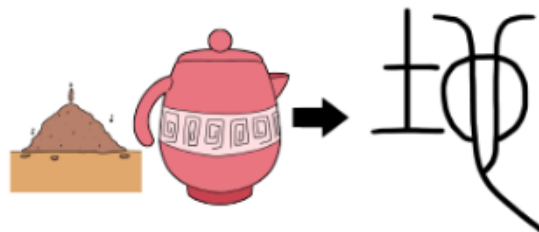
소전

紙

해서

7
-
38

회의문자①



地

따(땅)
지

地자는 '땅'이나 '대지', '장소'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地자는 土(흙 토)자와 也(어조사 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也자는 주전자를 그린 것이다. 地자는 이렇게 물을 담는 주전자를 그린 也자에 土자를 결합한 것으로 흙과 물이 있는 '땅'을 표현하고 있다. 地자는 잡초가 무성한 곳에서는 뱀을 흔히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지(土)와 뱀(也)'을 함께 그린 것으로 보기도 한다.

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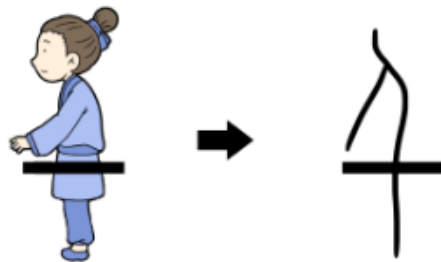
소전

地

해서

7
-
39

지사문자 ①



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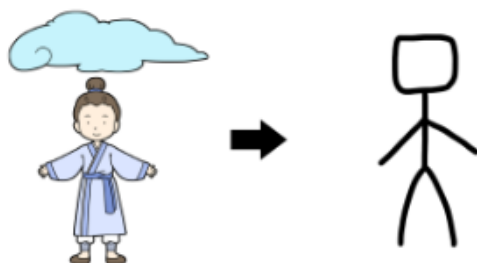
일천 천

千자는 숫자 '일천'을 뜻하는 글자이다. 千자는 사람의 수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千자의 갑골문을 보면 사람을 뜻하는 人(사람 인)자의 다리 부분에 획이 하나 亅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의 수가 '일천'이라는 뜻이다. 고대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천' 단위의 수를 표기했다. 예를 들면 '이천'일 경우에는 두 개의 획을 亅 그었고 '삼천'은 세 개의 亅 획을 긋는 식으로 오천까지의 千 수를 표기했다. 千자는 그 중 숫자 '일천'을 뜻한다. 후에 천 단위를 표기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지금은 千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쓰이지 않는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7
-
40

회의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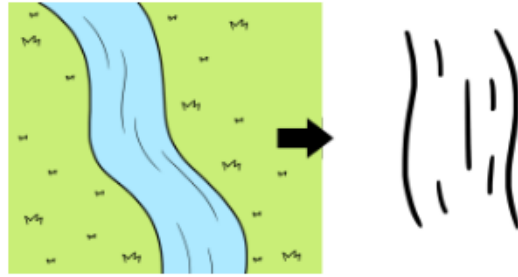
天

하늘 천

天자는 '하늘'이나 '하느님', '천자'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天자는 大(큰 대)자와 一(한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天자를 보면 大자 위로 동그란 모양이 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 위에 하늘이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天자는 사람의 머리 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하늘'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단순히 획을 하나 그은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시내나 하천을 뜻하는 川자는 갑골문에서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는 글자이다. 川자는 물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하천을 따라 흐르는 물이 잘 표현되어있다. 사실 '물'을 뜻하는 水(물 수)자와 𣶒 '하천'을 뜻하는 川자의 𣶒 갑골문을 보면 모두 물이 흐르는 하천이 그려져 있었다. 다만 水자는 물의 성질이나 특성과 관련된 글자로 쓰이는 반면 川자는 하천의 특징과 관련된 글자에 쓰인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川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물길'이나 '따라 돌다'라는 뜻을 전달하게 된다. 참고로 川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𣶒자로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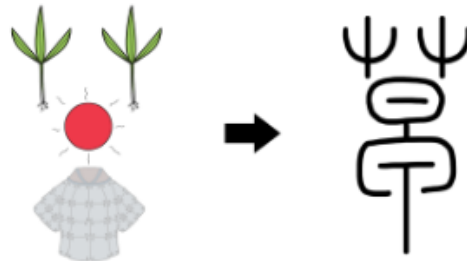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草자는 '풀'이나 '황야', '초고'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草자는 艹(풀 초)자와 屮(일찍 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이미 풀을 뜻하는 글자로써 艸(풀 초)자가 있지만 주로 부수 역할로만 쓰이고 草자는 단독으로 '풀'을 뜻할 때 사용되고 있다. 草자에 쓰인 屮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조→초'로의 발음역할만을 한다. 草자가 흔해 빠진 '풀'을 뜻하다 보니 '영성하다'나 '보잘것없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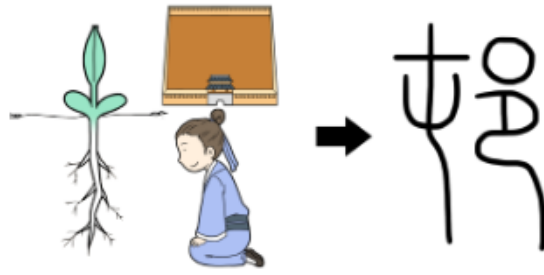
소전

해서

草

풀 초

형성문자①



村

마을 촌

村자는 '마을'이나 '시골'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村자는 木(나무 목)자와 寸(마디 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寸자는 손가락의 마디를 뜻하지만, 씨족집단으로 구성된 농촌사회를 뜻하기도 한다. 그런데 소전까지만 하더라도 屯(진 칠 둔)자와 畝(고을 읍)자가 결합한 邨(마을 촌)자가 '마을'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邨자는 '마을에 주둔하다'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해서에서부터는 '씨족 공동체'라는 의미의 村자가 '마을'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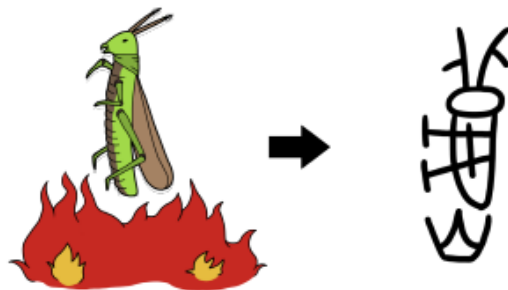
邨

소전

村

해서

회의문자①



秋

가을 추

秋자는 '가을'이나 '시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秋자는 禾(벼 화)자와 火(불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래서 秋자는 가을에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을 火자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곤 했다. 그런데 秋자의 갑골문을 보면 禾자가 아닌 메뚜기가 𪎭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메뚜기를 구워 단백질을 보충하던 시기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가을'은 메뚜기를 구워 먹는 계절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소전에서 메뚜기가 아닌 禾자가 쓰이면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뜻하게 되었다.

𪎭

갑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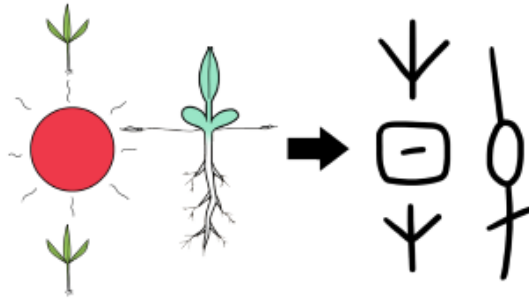
𪎭

소전

秋

해서

회의문자①



春

봄 춘

春자는 '봄'이나 '젊은 나이', '정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春자는 日(해 일)자와 艸(풀 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春자의 갑골문을 보면 艸자와 日자, 屯(진칠 둔)자가 함께 그려져 있었다. 여기서 屯자는 새싹이 올라오는 屯(진칠 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니 갑골문에서의 春자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받고 올라오는 새싹과 초목을 함께 그린 것이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모습이 크게 바뀌면서 지금의 春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春자는 단순히 '봄'이라는 뜻 외에도 사람을 계절에 빗대어 '젊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욕'이나 '성(性)'과 관련된 뜻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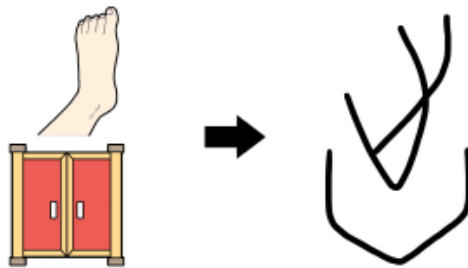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出

날[生]
출

出자는 '나가다'나 '떠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出자는 사람의 발이 입구를 벗어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出자의 갑골문을 보면 움푹 들어간 것 위로 발이 出(출)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발이 입구를 나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出자는 이렇게 출구를 나오는 모습으로 그려져 '나가다'나 '떠나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후에 형태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본래는 입구에서 발이 나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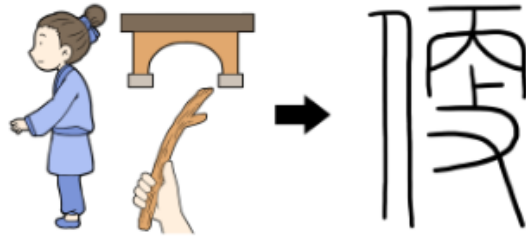
소전



해서

7
-
47

회의문자①



便

편할 편/
똥오줌
변

便자는 '편하다'나 '똥오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便자는 '편하다'라고 할 때는 '편'으로 '똥오줌'은 '변'으로 발음을 구분한다. 便자는 人(사람 인)자와 更(고칠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更자는 탁자와 채찍을 함께 그린 것으로 '고치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고치다'라는 뜻이 가진 更자에 人(사람 인)자를 더한 便자는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불편해한다는 것은 대소변을 의미한다. 그래서 便자는 본래 '똥오줌'을 뜻했었다. 참았던 대소변이 해결하게 되면 몸과 기분이 편해질 것이다. 그래서인지 便자는 후에 '편하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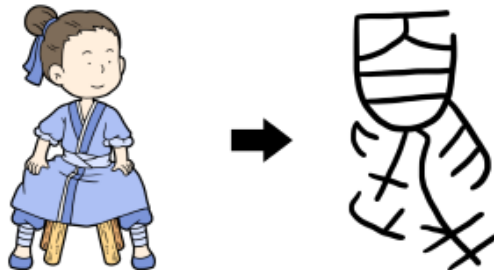
소전

便

해서

7
-
48

회의문자①



夏

여름 하

夏자는 '여름'이나 '중국'을 뜻하는 글자이다. 夏자는 頁(머리 혈)자와 夊(천천히 걸을 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夏자의 금문을 보면 頁자에 손과 발만 함께 夊 그려져 있었다. 夏자는 본래 중국 한족(漢族)의 원류인 화하족(華夏族)을 뜻했던 글자였다. 하(夏)나라는 기원전 2,070~1,600년경 우왕(禹王)이 세운 중국의 고대 왕조를 말한다. 상(商)나라 이전 수백 년간 존재했다고 기록된 나라다. 하나라를 중국의 시조로 보기 때문에 지금도 夏자는 중국이나 중국인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夏자가 왜 '여름'을 뜻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화하족의 문화와 관련됐거나 단순히 여름을 뜻하기 위해 글자를 빌려온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夏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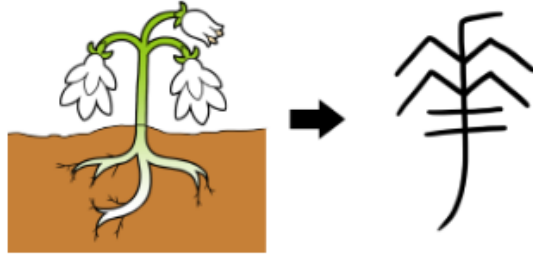
夏

소전

夏

해서

형성문자①



花

꽃 화

花자는 '꽃'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花자는 艹(풀 초)자와 化(될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化자는 '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본래 소전에서는 땅속에 뿌리를 박고 꽃을 피운 모습을 그린 𠂔(꽃 화)자가 '꽃'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지금의 花자가 모든 '꽃'을 통칭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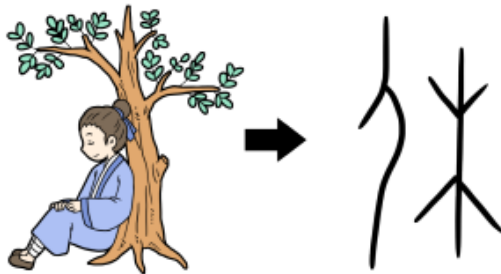
𠂔

소전

花

해서

회의문자①



休

쉴 휴

休자는 '쉬다'나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休자는 人(사람 인)자와 木(나무 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木자가 나무를 그린 것이니 여기에 人자가 더해진 休자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갑골문에 나온 休자 역시 나무에 등을 기대고 있는 사람이

休 그려져 있었다. 그늘에 기대어 쉬고 있다는 것은 일을 멈추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休자는 '쉬다'라는 뜻 외에도 '그만두다'나 '중지하다', '멈추다', '사직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𠂔

갑골문

休

금문

休

소전

休

해서